

건축, 또 하나의 문화자원 Architecture as a Cultural Resource

오기수 / (주)스페이스·오
by Oh Ki-Soo

경제적 고통, 위기를 겪어야 하는 상황, 즉 사람으로 비유하면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및 정형외과적 이상소견을 보이기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넘고 있다. 그간 병치료를 위해 사방팔방으로 옹하다는 데는 두루 찾아다니고 있었지만, 딱히 차도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그 이유는 환자 본인의 마음자세에 있는 것이 아닐까? 병의 완치 과정에서는 의료적 치료외에도 회복하고자 하는 환자의 의지와 건전한 생각이 중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와 동시에 환자의 체질을 바꿔주는데 있어 그 환자의 몸에 맞는 '대체적 치유법' 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내 모든 문제에 대해 처방하는데 있어 서구적 약전(藥典)과 그 효능만을 믿으려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사실 르 꼬르뷔제가 금세기 초반에 그 좋다는 건축방법과 이론을 토해내는데 앞서 주장하고 전제한 것은 인간을 포함하여 건축을 구성하는 각 성분을, 인체의 생명력을 건전하게 유지시켜주는 혈액, 장기, 뼈, 살 등 4대 요소의 건강함과 그것의 원활한 상호관계를 연관시켜 설명한 건축과 도시의 '건전성' 이지 않았던가? 이 건전성을 회복하는 일이 작금의 우리에게 다가온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필자에게 이 화두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언급하려는 무모한 의도는 없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건축인들은 어떤 자세로 건축을 매개로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그 구성원의 건전성 회복에 일조해야 할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건축은 문화로 이해되어야 한다.

건축은 일상의 생활을 담은 그릇이자 그 생활내용이다. 그것은 달동네의 정서로부터 대중문화, 고급문화의 성격을 모두 담아 어우를 수 있는 용기인 것이다. 이같은 내용으로서의 이해를 통해 그 그릇을 사용할 사람들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바로 시작 시점이라고 하듯, 지금이야말로 건전성 회복을 위해 준비하고 실천할 기회인 것이다. 우선 그간 정신없이 생산해내느라 경황이 없어 챙기지 못했던 것, 즉 건축인의 본업과 필연여부, 의지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될 수 밖에 없는 문화, 예술분야들에 대해 찬찬히 살펴보고 연구하여 건축이란 그릇속에 농익어 들어가 진한 그 무엇이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자세는 오염되거나 상하지 않고 부러지거나 상처가 나도 자가치유할 수 있는 올이 끈고 건전한 건축행위의 토양을 일구는 단초이다.

둘째, 건축은 구체적 현실이며 가치높은 문화자원이다.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의욕적으로 행하는 개편작업 중 필자가 일견 주목하게 되는 부문은 '문화관광부'의 탄생이다. -공보부, -체육부, -관광부 등 '문화' 라는 말 자체로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을텐데 뭔가 허전하여 어미에 미시적인 분야를 강조하여 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정부가 바뀌었으니 같은 얼굴이지만 그래도 이름이라도 새우므로 바뀌입히자는 일회적 발상이

아니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도처에 있는, 그러나 너무나 친숙하고 일상적이어서 간과해 왔던 가치로운 것들에 주목하여 부가가치 높은 문화자원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의 발로이기를 믿고 싶다. 물론 그 중심에 건축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과거 우리 정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프랑스에서는 한 세기의 절정기에 들어가는 60년대 중반 드골대통령부터 몇 대에 걸친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음 세기를 준비하고 세계 사회의 문화 중심임을 자신있게 선언하기 위해 향후 30여년 동안 기획연구·실행·완성한 Grand Project는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 문화관광자원이 되었다. 우리는 100년전의 에펠탑과 함께 세기의 전환점마다 미래를 준비하는 안목과 정책적 지속성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으며 이방인인 라이트가 설계한 제국호텔을 메이지무라/明治村에 이전 복원하고 일본 근대건축 성립의 조력자 A. 레이먼드의 가루이자와 탈리아신을 보존하여 금세기 초 서양인들이 자신에게 준 건축을 가치로운 문화자원으로 자랑스럽게 승화시켜 내·외국인 모두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키고 그 밖에 많은 건축물과 시설들을 현재와 미래를 위한 문화자원이란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일본의 예, 그리고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받아들여 그들의 건축작품을 관광코스인 한 부분으로 유도하는 등의 정책적 지혜를 우리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떨까? 90년대 들어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캐치 프레이즈, 즉 구호에 불과하였더라도 문화관련 부처에서 제정하는 '무슨 무슨 해'가 많았는데 가장 국민에게 가까이 있고 그래서 가장 직접적이고 폭넓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의 해'가 제정되지 못한 것은 누구를 탓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와 정책 입안자는 아마도 건축을 모든 예술종 가장 하위예술로 서열매김한 세기초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예술론을 신봉하는가 보다.

우리의 현실은...

지난 수십년간 우리의 도시에 엄청난 재정적, 물량적 투자를 해왔음에도 그 안에 "좋은 건물"이 흔치 않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논리를 우선으로 하는 건축행위가 행해졌고 문화자원으로써 설계과정에서부터 완공과정까지 전반적인 건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그 결과 짓는 과정의 안이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인식과 실천면에서의 "부실함"은 안타깝게도 최근 새로운 추세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官, 民 할 것 없이 거의 한 주일에 한 건씩 공고되다시피 하는 각종 설계경기, 입찰 등이 그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설계경기는 원칙적으로 좋은 질의 설계와 건축을 만들어내기 위한 건전한 절차이다. 하지만 최근의 현상은 건축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관자의 준비부족과 부실하고 막연한 지침, 그러나 작업의 범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밀도 끝도 없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주관자의 몰이해, 그리고 많은 경쟁을 통해 가능한 한 그럴 듯하면서 저렴한 결과물을 얻으려는 新 경제성 논리, 그럼에도 마치 어려운 시대에 거꾸로 설계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건축의 한국판 뉴딜정책'이나 되는 듯이 시혜하는 듯한 태도로 무책임하게 시행하는 일정, 게다가 생존이라는 급류속에서 그 덩치에 관계없이 뛰어들어야만 하는 건축인들의 처절함을 자조적으로 보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건축의 수요자나 건축인들이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선 어떤 단계를 취해야 할지 건전하고 세밀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만들어가는 치열한 의식과 안목을 다듬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가 곧 오래 두고 보아도 건전하고 좋은 건축이요, 문화자원으로써의 건축이 될 것이고 중복투자가 필요없는 그 자체로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나 민망하게도 전문가들인 건축인들이 그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과 각 개척 도시의 경기장 건립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대가 아니더라도 어디에 건립하고 얼마나 돈이 드는가가 물론 중요하지만 98년 프랑스 월드컵 주경기장이나 우리와 공동개최하는 일본의 주경기장 건립과정에서 처럼 단순히 축구경기장이 아니라 그 자체로 미래의 역사적 기념물로서 문화관광자원이자 도시기반시설로써 인식하고 판단하는 지혜와 결단력이 요구됨을 상기했으면 한다.

이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얼마전부터 프랑스, 영국 등 서구에서는 몇 백일 앞으로 다가온 새로운 일천년 시대를 기념하고 주도적 문화국가임을 자임하는 일환으로 대대적인 건축적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전략 차원에서 모든 것은 불가피하게 현재를 꾸러가는 문화정책 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 그리고 새삼스럽지만 모든 건축인들이 건축과 우리 생활 전체를 문화자원의 한부분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한편 현실적인 고통과 위기는 건축인들의 정신적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좋은 한국 건축"은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정신적 성장과 견련함을 도모하고 그것을 가치롭게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면서 희망을 갖고 새로운 일천년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질 때 건축인 모두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